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인 것을 고백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공동체 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자연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오늘 오후 2시에는 교제를 위해서 사랑방운동회로 모입니다.
- 다음 주는 실행위원회 정기 모임입니다. 각 실행위원회 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멧쟁이학교 5학년이 10월 3일(목) 유럽공동체탐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일(수) 공동체학교 선교바자회가 오전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기증물품은 10월6일(일)~8일(화)까지 받습니다.
- 성서일기 진도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미가서로 바뀝니다.
- 박동인, 윤경옥 집사의 장남 박재완 군과 신기성, 최경숙 집사의 차녀 신수라 양 결혼식이 9일(수)에 있습니다. 예식 장소는 아펠가모 잠실이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도시락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감사) / 오봉순 (남편 기일)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0 호

2024년 10월 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자연 예배로 보여주는 사랑방공동체의 꿈

예레미야 애가는 많은 교회에서 다소 경시된 책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여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로 전해집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애가는 성경의 세 번째 그룹인 성문서에 속합니다. 그중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에 읽혔던 다섯 권의 책인 메길롯에 해당됩니다. 메길롯은 다섯가지 두루마기로 불리는 책으로 룯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애가, 에스더가 이에 속합니다. 이 메길롯은 이스라엘의 5대 절기에 회당에서 읽혀졌습니다.

현재는 유대교에 정착되어서 유대교의 5대 절기마다 낭독되고 있습니다.

- ① 아가서: 유월절-출애굽 기념
- ② 룯기: 오순절(칠칠절)-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
- ③ 예레미야 애가: 성전파괴일-솔로몬의 제1성전이 무너진 날
- ④ 전도서: 장막절(초막절)-출애굽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1주간 초막생활 함.
- ⑤ 에스더: 부림절-하만의 간교한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스라엘 민족은 중요한 5절기에 성경을 낭독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합니다.

사랑방교회 생활 중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자연예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방교회 역사 속에 담긴 정신 중>

이곳 무림리로 이전하기까지는 매달 자연예배가 있었다. 매달 마지막 주일은 자연으로 나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도 없었고 비가 오거나 해서 방해 받은 적도 없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이곳저곳을 참 많이 다녔다. 사랑방교회의 꿈 중에는 '도심지에 교육관 전원지역의 예배당'이라는 꿈이 있다. 일하는 사람들이 평일에 쉽게 와서 쉬기도 하고 배우기도 할 수 있는 도심지의 교육관과 자연 속에서 드리는 경건과 훈련, 그리고 휴식,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장으로서 전원교회가 꿈이다. 자연예배는 전원교회가 세워지기 까지 과도기로서 드리는 과정적 의미였다. 무림리에서 매주 자연예배를 드리는 셈이다. 교회가 더 멀어졌음에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모두 나오는 것은 10여년 동안 자연예배로 훈련된 영성 덕이다. 자연예배는 사랑방의 아이들에게 자연친화적이고 인간적인 사교방식과 신앙으로 자라도록 했고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참다운 신앙과 경건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징계 받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 온 사건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방공동체의 자연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경험이자, 이스라엘의 광야생활처럼 꿈을 갖고 나가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더 꿈꾸고 하늘나라의 삶을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사랑방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그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
<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다 표현못해도, 내가 주인 삼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십자가 그사랑

기도 :

성경 : 예레미야 애가 2장

제목 : 선지자의 애통한 노래

1. 내용: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모든 것을 불사르셨다 (What)

<문단구분>

1~9절 도성의 파괴

10~17절 사람들의 고통과 원수들의 조롱

18~22절 고뇌에 찬 호소

2. 의미: 철저한 심판과 회복의 소망 (Why)

- 1) 예루살렘의 번성과 번영과 통치와 질서가 모두 무너졌다.
- 2) 하나님의 보호가 모두 떠나갔다.
- 3) 비참한 중에도 하나님께 호소한다.

3. 적용: 신앙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자 (How)

- 1) 성전의 타락이 심판의 시작이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 2)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다.
- 3) 신앙의 타락은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없게 된다.

저는 지난 8월말 이사를 했습니다. 기존 자취방은 수원역과 가까웠지만 그만큼 전투기 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차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미리 말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저는 정말 매일 퇴근하면 집 보러가고 갔다 와서는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또 다른 집 찾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집을 구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다양한 조건의 집들에서 최선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출퇴근 시간도, 주일에 교회와 집으로 가는 시간도 따져봐야 했고, 지난번 집에서 가장 힘들었던 소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집들을 확인한 끝에 지금의 집을 골랐지만 이사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대출도 알아봐야했고 이삿짐센터도 불러야겠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업체를 쓰려면 또 알아봐야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일은 처음인지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액도 제가 생전 만져보지 못했던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너무 손 떨리고 위가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사 당일 오전, 이삿짐센터에서 사람이 와서 짐을 쌀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가해도 되나 할 정도로 서성거렸지만, 잔금 처리를 하면서부터 너무 정신없어지면서 저녁에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짐이 하나도 풀리지 않은(반포장이사) 상태의 집 바닥에 일단 누워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때까지 저에게 이사는 다음 집은 이미 정해져있고 이사도 학교 갔다 오면 다 되어있어서 별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처음부터 겪어본 이사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몇 번은 더 겪어야만 하는 일이겠죠. 그나마 저는 혼자서 몸이라서 제 환경만 생각하면 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환경까지 생각해야하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간 혼자서 이사를 챙겼던 엄마와 다른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미리내사랑방 김화인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누가복음 1 : 68-72 인도자
2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6 : 3, 6-7 인도자
 다함께
37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여호수아 24 : 14-28 설교자
땅끝에서 따뜻한사랑방
“ 언약의 증거, 우리의 선택 ” 정재훈 목사
〈 성찬식 : 정태일 목사 집례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58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채영학 박경희 / 봉헌위원 : 박경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기도문 저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언약의 증거, 우리의 선택

여호수아의 설교. 나이 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들의 역사를 요약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선택의 갈림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섬길 대상을 선택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의 신실함이 부족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기에 진정한 마음가짐과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언약의 갱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고 증거의 돌을 세워서 그들의 결단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은 언약을 기억하고 갱신하는 것이었으며, 이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회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의 의미를 새기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김화인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에 멋진 미술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지음이엄마이신 최명지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꾸러기 친구들과 즐거운 미술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첫 미술 시간이었는데 물감으로 알록달록한 비를 내리고, 구름도 붙이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재료여도 하는 친구에 따라 개성 있는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어서 하하호호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와서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고구마 같습니다. 올해도 맛있는 고구마를 캐기 위해 꾸러기들이 밭으로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 고구마는 깊이 묻히고, 땅이 딱딱해서 꾸러기들이 직접 호미로 고구마를 캐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삽으로 흙을 퍼주면 꾸러기들이 흙을 털어서 고구마를 찾아 바꾸니에 넣었습니다. 서로 하나라도 더 넣겠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법 하지만 불평 하나 없이 모두가 끝까지 열심히 고구마를 수확했습니다.

씩씩한 지음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직 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해져서 다시 학교에 나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직 검사가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결과가 잘 나오게 같이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시월은 휴일도 많지만 할 일도 많습니다. 먼저 저희 모두를 긴장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도보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준비하며 여행연습을 했습니다. 복장을 다 갖추고 무림이 소풍길을 지나 귀락마을을 돌아 축석을 거쳐서 학교로 9기로 정도를 걸으며 몸과 마음을 다 점검했습니다. 걸음걸이, 신발상태를 눈여겨보고 저학년들을 살피는 마음을 고학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서 리드하시는 선생님의 지시에 지체없이 쫓아 친구에게 까지 전달하기와 길 건너기 연습

배움과 가르침

을 할 땐 진지해서 살짝 떨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바자회 준비 이야기입니다. 어린이학교 주관이라 더 마음과 몸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한뜻과 한마음이 되자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모두들 예! 하며 고구마를 캐고 줄기는 모아서 바자회에 김치를 담궈 팔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뽀뽀 땀흘려 캔 고구마는 집으로 가져가서 썰 먹겠지만 줄기는 일일이 하나씩을 잡고 껍질을 까서 12키로 정도 김치 주재료를 만들어 냈습니다. 운동장에 큰 자리를 펴놓고 전교생이 올라 앉아 재잘재잘 얘기를 나누며 죽죽 껍질 벗기는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김치에 버무려져서 개척자들을 넘어 미얀마 로힝야족에게로 전달되겠죠~ 어린이 화이팅입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멋쟁이들은 아직 붉게 물들지 않은 단풍의 아래에서, 사람의 마음을 달리게 하는 가을의 날씨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란 빨간 날이 겹쳐서, 멋쟁이학교에서는 수요일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요일 오후에는 다함께 노작을 하면서도 집에 갈 기대감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유럽공동체탐방 여행을 떠났던 장성아 선생님과 5학년이 무사 귀국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께서는 멀리서 보이는 실루엣만으로도 금세 자녀들을 알아보시는 능력을 선보이셨습니다. 감동의 재회는 이때만이 아니라 멋쟁이학교에 등교했을 때 다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들을 거쳤을 것이기에,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떠는 날도 아마 하루 이틀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여행 중에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학년을 포함하여 다들 좋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다음 수요일에 있을 선교바자회를 잘 준비해서 다시 반갑게 만나길 기대합니다.

< 교사 : 이어진 >

내 몸을 돌보는 일

“오~~살이 많이 빠졌네요. 사모님 예뻐지셨어요~~”

요즘 많이 듣는 기분 좋은 말입니다.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뜻하진 않은 다이어트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모를 위장염으로 고생을 하는 중에 그토록 사랑하는 커피를 먹을 때 마다 배가 아프고 과식을 하거나 밀가루로 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밀가루를 먹지 않으니 속이 편해지고 심한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커피를 끊을 때는 금단 증세로 인한 두통과 무기력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커피에 완전히 매인 몸이었구나.’ 세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이토록 힘들구나~ 깨달으면서 다시는 어느 하나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목표는 하나!! 건강을 챙기고 체력을 쌓아 올해 못한 멋쟁이들과의 지리산 종주를 내년에는 꼭 하자! 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뒷산을 걷고 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후에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맞으며 걷는 산길은 체력을 보충해주는 것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하니 이제 아침에 얼굴과 손이 붓는 일도 없고, 속이 답답해서 소화제를 먹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늘어져서 낮잠을 자는 일도요~~

나를 챙기는 일에 얼마나 소홀했던가. 아프면서 깨닫게 되니 미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고 주신 우리의 몸을 살피고 돌보는 일과 자연 속에서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일에 함께 하시겠어요?

그럼, 이~~~빠지실겁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18장, 304장

성 경 : 출애굽기 23:1-9

말 씬 : 정의로운 삶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로힝야 족을 위해>

로힝야족(Rohingya)은 원래 미얀마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이슬람교라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당했습니다. 2018년, 분리주의 반군이 군부대 등을 습격해 군부는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습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에서 난민 피신을 허용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혁자들을 위해>

개혁자들은 평화를 위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이들의 공동체로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 생명과 평화를 살리기 위한 평화교육, 철인3종 등 교육훈련과 국내외 평화기행과 2000년 동티모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아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일본, 아이티에서 월드서비스, 평화캠프, 긴급구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공동체를 방문 중인 온주교회 교사들을 위해
- 2) 주일에 있을 야외예배와 운동회를 위해
- 3) 귀국하는 멋쟁이 5학년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한 주 동안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공동식구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지체들의 모습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확의 철이 와서 꾸러기와 어린이들이 고구마 캐기를 했고, 바자회에 판매할 고구마순 김치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의 기쁨을 누릴 날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장영미 전도사 >